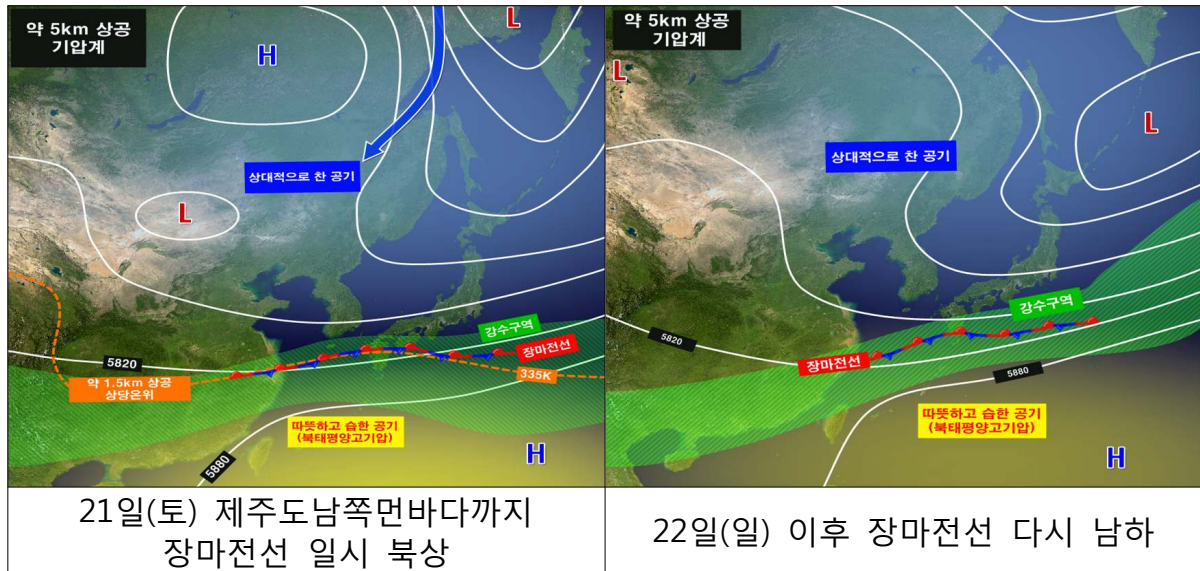


<b>배포일시</b>	2014. 06. 20.(금) 14:30 (총 2매)	<b>보도시점</b>	<b>즉 시</b>
<b>담당부서</b>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b>담당자</b>	팀장 이 현 수
		<b>전화번호</b>	02-2181-0602 02-2181-0608

## 장마전선 동향과 강수전망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1일(토)~22일(일) 새벽 제주도 가끔 비, 이후 소강상태
- 중부와 남부지방은 당분간 더위 지속, 간간히 소나기 곳



<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 [ 장마전선 동향 ]

- 현재(20일) 장마전선은 동중국해상~일본남쪽면바다에 동서로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 제주도 남쪽면바다까지 북상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내일(21일) 밤부터 모레(22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음.
- 23일(월) 이후 장마전선은 북위 30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 다음 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내륙지방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무더운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 다음 주말(29일)경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여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음.

※ 장마전선의 위치는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람.

### [ 장마전선 북상이 늦어지는 이유 ]

□ 최근 바이칼호 북동부에 위치한 저지 고기압(Blocking High)의 영향으로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남하하여, 우리나라 주변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을 막고 있음. 다만, 상층 단파골이 지날 때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제주도 남쪽면바다까지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 내륙지방 강수전망 ]

□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는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전사이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에서는 내일과 모레(22일) 오후에도 대기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 예상 강수량은 17시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장마전선은 정체전선(Stationary front)의 일종으로, 실무적으로 정의하면 850hPa(약 1.5km 고도)의 상당온위 335K 부근에서 남북 기온경도가 크고, 지상 부근에서 바람의 남북변화가 큰 지역으로 기상전문가의 주관에 따라 분석위치가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장마기간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이며, 장마기간 중에도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장마전선으로 인한 비가 시작되더라도 한동안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역이 과거 기록에 자주 나타남. 또한, 최근 계절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장마기간 이후에도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장마기간보다 장마종료 후 강수량이 많은 해가 다수 있음.

※ 장마시종과 지역은 여름철이 지난 후 기후예측과에서 사후분석을 통해 확정되며, 현재 분석과 다소 다를 수 있음.